

# ‘영화 인생 20년’ 전도연에 접속하다

스크린 데뷔 20주년을 맞은 배우 전도연의 영화인생을 망라하는 특별전이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7.13~7.23)에 열린다.

전도연은 지난 14일 부천 고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계속 영화를 신인 같은 마음으로 찍고 싶은데 20주년이라는 게 부담스러웠다”고 말했다.

“처음 특별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선뜻 응하지 못했어요. 배우는 항상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된 느낌을 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원래 꿈이 배우도 아니었고 처음 배우를 했을 때 이렇게 오래 연기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하다 보니 꿈이 되고 계속하고 싶은 길이 되었네요.”

그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지나온 길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동안 수고했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수고하라’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 CF로 데뷔해 TV 드라마에서 활약했던 전도연은 1997년 ‘접속’으로 스크린에 데뷔한 이후 20년간 17편의 굵직한 작품들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제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객상 수상작이기도 했던 ‘접속’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뒤에는 두 번째 작품 ‘악숙’까지 히트시키며 ‘멜로의 여왕’에 등극했고, ‘내 마음의 풍금’에서는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17살 늦깎이 초등학교생으로 분해 뜻밖의 연기로 변신에 성공했다.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는 누아르 액션에 도전하며 ‘센 언니’로 또다시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고 ‘스캔들-조선남녀상열지사’로 사극에서도 인정받았다. 그의 ‘인생영화’로 꼽히는 ‘밀양’에서는 신 들린 듯한 내면 연기로 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면서 ‘칸의 여왕’이라는 수식어를 갖게 됐다.

전도연은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로 데뷔작인 ‘접속’과 ‘해피엔드’, ‘밀양’을 꼽았다.

“‘접속’은 처음 영화를 접했던 작품이어서 의미가 있어요. ‘해피엔드’는 배우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배우와 감독이 소통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 준 작품입니다. 처음으로 인물에 대해 욕심내고 감독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영화 작업에 대한 즐거움 느낀 작품이죠. ‘칸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준 ‘밀양’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만큼만 연기하면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연기적으로 터닝포인트가 된 작품이죠.”

## 스크린 데뷔 20년 전도연 특별전 23일까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서 출연작 상영·관객과 대화 등 마련

아쉬움이 가장 많이 남는 작품으로는 ‘헛녀’를 꼽으면서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액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과 의욕으로만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해 준 작품”이라며 웃었다.

그는 또 “나도 언젠가는 천만 영화를 찍어보고 싶다”면서 “작품에 대한 아쉬움은 늘 있지만 흥행 못했다고 아쉬워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20년 동안 17편이면 거의 1년에 한 편꼴로 작품을 찍은 셈이다.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17편밖에 못 찍었다는 데에 놀랐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작품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연기하는 것과 촬영 현장을 좋아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게 어느 순간 가장 큰 즐거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을 기획한 정성일 평론가는 “전도연은 매년 용기 있게 새로운 장르,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주인공에 도전했고, 여전히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진화하는 현재 진행형의 배우”라며 “이번 특별전은 전도연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한국영화사 20년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년간 정상 의 자리를 지켜온 배우 전도연에게 영화란 무엇일까?

“영화는 저에게 있어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도연과 일은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전도연이 그냥

영화인 것 같습니다.”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는 “나이만 들었지, 크게 달라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기대를 깨고 싶고 기대를 넘어서고 싶다. 늘 궁금하고 기대되는 배우이고 싶다”고 말했다.

영화제 기간 열리는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에서는 전도연의 연기인생을 망라하는 17편 모두를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자리도 마련된다. 부천시청 2층 어울마당 입구에서는 전도연의 영화인생을 한눈에 엿볼 수 있는 전작들의 포스터와 스틸 사진 등을 전시한다.

/연합뉴스



## 빌보드 최고의 K팝 걸그룹 ‘소녀시대’

10년 동안 꾸준히 활동 커리어 보여...2위 투에니원

소녀시대(사진)가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지난 10년간 최고의 K팝 걸그룹’에 선정됐다.

소녀시대는 빌보드가 지난 12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발표한 ‘지난 10년간 최고의 K팝 걸그룹 10 : 평론가의 선택’(10 Best K-Pop Girl Groups of the Past Decade : Critic's Picks)에서 1위에 올랐다.

빌보드는 소녀시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강력한 커리어를 보여준, 반박의 여지 없는 K팝의 제왕으로 탄탄하게 제작된 노래와 활기 넘치는 여성스러운 매력으로 한국을 사로잡고 있다”고 칭찬했다.

또 “이들은 수년간 꾸준히 그룹 활동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연기, 솔로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경력도 이어나가고 있다”며 “데뷔 10주년이 되는 8월 발매할 새 앨범으로 여전히 최고임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2위는 투에니원, 3위는 원더걸스, 4위는 브라운아이즈 걸스, 5위는 에프티스콜과 이들의 유닛(소그룹) 오렌지카라멜이 함께 올랐으며 6위는 카라, 7위는 에프엑스, 8위는 포미닛, 9위는 에이핑크, 10위는 미쓰에이 가 각각 뽑혔다.

/연합뉴스

## ‘스파이더맨’ 시리즈 최고 스코어·올해 외화 1위

개봉 10일 만에 537만명 기록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올해 외화 흥행 1위에 등극했다. 16일 배급사 소니픽처스에 따르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 10일 만인 지난 15일 누적 관객 수 537만3557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513만 명을 동원한 ‘미녀와 야수’의 기록을 깨고 올해 외화 흥행 1위에 등극했으며, 누적 관객 수 531만 명으로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2위에 오른 ‘더 킹’의 성적도 앞질렀다.

또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가장 많은 493만 명을 동원한 ‘스파이더맨’ (2007)도 앞지르면서 역대 ‘스파이더맨’ 중 최고 스코어를 기록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아이언맨’에게 발탁된 15세 소년 ‘스파이더맨’이 세상을 위협하는 악당 벌처에 맞서 진정한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연합뉴스

### TV 프로그램 1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 50 팔도방송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50 그레이트 지리산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살림하는 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의 이슈를 말한다(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특 Talk
1	0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50 미래기획 203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재)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응개 소나타 2	55 닥터 365
2	30 101세의 프로젝트(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독?독! 키즈쿨 55 지오메카	00 뉴스브리핑
3	00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자동구부착성 위키 2 30 TV유치원	25 별별버너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쇼 더 화통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리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쏘자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별버너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0 이웃집 할스(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45 군주(재)	30 나이트라인

###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전문 아틀라스 (프랑스 외인기행 -1부 부르고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체육북음과 오이고추 무침)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자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20:50 세계대미행 〈우리 지금 만나 장미의 캐나다 1부 풍문으로 들었소 밴쿠버〉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대미행(재)	16:15 방귀대장 똥뽀(재)	21:30 한국기행 〈절벽과 계곡이 1부 그곳에 누가 살까?〉
06:20 세계대미행	12:00 EBS 정오 뉴스 -마주의 어드벤처	16:30 두다다콩(재)	21:50 EBS 다큐 프라임 〈함글 비늘의 비밀 -1부 숨은 그림 찾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주의 어드벤처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7:15 얼마 깨무리	22:45 엄마를 찾지마
07:30 로보카 폴리	12:45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23:35 가칠남녀
07:45 총동! 슈퍼왕스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덩동명 유치원 1~2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8:00 생방송 퓌! 퓌! 보너하니1~4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다 시즌3〉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9:00 방귀대장 똥뽀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7일(음 윤5월 24일 乙巳)

子	48년생 단도직입적으로 풀어나가야만 한다. 60년생 초기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뒤늦게 생길 것이다. 72년생 시도한다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판세이다. 84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12	午	42년생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체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54년생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지겠다. 66년생 중대사와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78년생 호기를 일러. 90년생 문제가 될 소지는 없으니 마음 놓아도 된다. 행운의 숫자 : 08, 43
丑	49년생 조심으로서 대단한 이득을 볼 수 있다. 61년생 판국을 뒤집을만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73년생 다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의 관점이다. 85년생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22, 01	未	43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영향을 줄만한 정도는 아니니 무시해도 된다. 55년생 시작이 올바른 선과 일치하다. 67년생 생활에 활력이 될 것이다. 79년생 복잡한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니 조심하라. 91년생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행운의 숫자 : 75, 96
寅	50년생 되새겨 볼수록 깊은 뜻이 있으리라. 62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74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만 한다. 86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3, 89	申	44년생 본디대로 대항이 나올 것이리라. 56년생 미리 알고 있다면 사전에 제어할 수 있겠다. 68년생 최소화할 수 있었을 때 효과가 나타나리라. 80년생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적응하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63, 17
卯	51년생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태연자약하게 침묵을 지키자. 63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75년생 별개의 계명으로 인식하라. 87년생 중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6, 97	酉	45년생 국면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57년생 기회는 왔으니 요건을 갖추는데 주력하라. 69년생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조심하기 쉬운 법이다. 81년생 주관적 심리를 배제하고 실상에 충실함이 옳다. 행운의 숫자 : 82, 37
辰	52년생 반응이 중요하다. 64년생 의도적이었는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벌어진 상황이었는가를 냉철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76년생 그런대로 양호할 것이다. 88년생 처음에는 어려우나 점점 쉬워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16	戌	46년생 행복의 마당에 들어서려는 길목에 놓여 있다. 58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올 것이다. 70년생 안벽을 추구하려다가 더 불안전해질 수도 있다. 82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취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리라. 행운의 숫자 : 15, 83
巳	53년생 의도적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으니 잘 살펴 보라. 65년생 진행에 탄력이 붙는 시세에 놓여 있다. 77년생 현행의 추이대로라면 길지가 명백하다. 89년생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모순이다. 행운의 숫자 : 11, 27	亥	47년생 외관에 이끌리면 대체를 가능하게 힘들어진다. 59년생 놓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라. 71년생 양자 간의 관계에서 매우 곤혹스럽겠다. 83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겨온 것 속에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행운의 숫자 : 71, 5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지원팀” ☎010-9790-8237